



전북농협, 어르신 건강 꾸러미 나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홀로 사는 어르신·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건강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꾸러미는 다문화가족들의 봉사로 즉석식품, 라면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연안은행(대표 윤국춘)에서 전주·완주지역 홀몸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윤국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지 못해 홀로 계신 분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게 되어 작은 위로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 노인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등이 폐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성요셉산양로원 생필품 전달·김장배추 뽑기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은 지난 20일 소안에 소재한 성요셉산양로원을 방문해 건어물 간장류, 밀가루, 쌀 등 생필품(1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이후 이웃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드실 김장배추 800포기를 밭에서 뽑아 성요셉산양로원까지 배달하며 성요셉 수녀님들의 수고로움에 도움이 되었다. 박지원 회장은 "주로 김치를 버려져 전달하는 봉사를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줄어들어 직접 밭에서 배추를 뽑고 나르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어울림 봉사회, 장애인 가구 김치 전달

전주시 효자2동(동장 김혜숙) 어울림 봉사회(회장 노창욱)는 22일 관내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손수 담긴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했다. 어울림 봉사회는 평소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밑반찬 지원, 요양병원 환자 간병, 목욕 봉사,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노창욱 회장은 "추운 겨울철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나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1동 새마을단체,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동장 박은주) 새마을부녀회(회장 강희)·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기춘)는 지난 20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평화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30여명은 직접 김치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 40여 가구에 전달했다. 강희 부녀회장과 정기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힘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김치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공헌활동 앞장 서겠다”

전북 새농민회, 사랑나눔 농산물꾸러미 기탁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기성)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농산물 꾸러미를 기탁했다. 이기성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장은 22일 전북도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꾸러미 800박스(3천5백만원 상당)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농산물꾸러미는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기성 회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전북새

농민회 회원들이 농산물꾸러미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며 "새농민회는 앞으로도 선진 농업 기술 전수는 물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새농민회는 농업에서 자립·과파·협동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수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한 선도농업인 조직으로 지난 1988년부터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도내에는 588쌍의 부부 농업인이 지역농업발전과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제와이즈맨 두레클럽,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전주두레클럽(회장 최인호)은 22일 회원들이 직접 담은 김장김치 10kg 20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서신동 주민센터(동장 김선중)에 기탁했다. 이날 최인호 회장은 "추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생각하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김장을 보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중 서신동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주두레클럽에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관내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제4회 pre-JOB 채용 경진대회'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4회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내 우수 기업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취업을 위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 희망자 중 면접을 통해 도내 청년과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19팀(총 48명)을 선발 참가자들은 약 4주 동안 채용제안서 구성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도내 일자리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채용제안서를 완성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 전북 식품 글로벌 진출 선도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영국 킹스턴시의 김장 페스티벌에 지역 중소기업 방문단을 이끌고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장 페스티벌은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 킹스턴시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 자선단체인 한영문화교류원(KBCF)이 주최하고 주영대사관, 재영한인회, 세계김치연구소, 세계한인무역협회, 전주대학교가 후원하는 행사다. 올해 3회째 김치 홍보 행사로 이번에는 전통 문화지역으로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어울려 더 의미있게



진행했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가 선보인 김치를 이용한 디저트 식품 시식회는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며 많은 현지인의 찬사를 받았다. 2022년 런던과 킹스턴시 문화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받기도 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전북지역 6개 기업의 상품 23종을 소개하며 홍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품은 군산 쌀보리로 만들어진 '군산쌀떡리면', 국산 바대를 활용한 황금바대꾸러미, '황금바대김밥부각'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10Q 감사행진' 전개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용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본격적인 감사 캠페인운동에 나섰다. 22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2021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10Q 감사행진'을 전개, 학생·직원·교수가 참여하는 10Q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10Q 감사행진은 삶으로 감사를 전하지는 뜻으로, 하루 열 번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하고 인사를 받는 감사와 배려 실천 운동이다. 이를 위해 10가지 실천 사항도 마련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10Q 감사운동' 선포식과 함께 고마운 사람에게 쓰는 감사카드와 정관광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감사 캘린더, 감사 나무 만들기, 감사 한 줄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내가 받은 배려, 내가 베푼 배려, 감사인지를 통한 변화 등을 주제로 하는 백일장도 열린다. 문용규 총장 직무대행은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을 격려하고 캠퍼스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감사운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감사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영상미디어 캠프 'DREAM IN MOVIE'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재학생 및 지역청년, 원주군민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캠프 'DREAM IN MOVIE'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20일 원주미디어센터 등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원주예비창업가 육성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와 LINC+사업단, 창업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 캠프는 '1인 미디어 트렌드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 기법'과 '나만의 느낌을 담은 크리에이티브한 편집 방법'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기본소득 전북본부, 헌혈캠페인 진행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상임대표 한양환 이하 전북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보편적 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 전북본부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캠페인을 통해 혈액수급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은 헌혈 후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남기면 된다. 한편, "보편적 나눔, 헌혈캠페인"은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같은 기간동안 국회와원회관에서 진행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온택트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온(溫)택트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여직원 모인인 목련회의 이번 봉사활동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온정을 전하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 및 자녀는 오전과 오후에 각 15명씩 총 2회에 걸쳐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재료순질과 반죽, 초코마린 모양 만들기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았고, 완성된 빵 400여개를 직접 포장하며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포스코 최종면접 동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문용규) 22일 포스코 광양백운이트홀에서 열린 포스코 생산기술직 면접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처의 대기업체 응지원담당자 면접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계과 이건, 백민석, 정상우, 정정규 학생 등이 최종 면접에 참여했다. 이건 학생은 "채용준비 전 과정에 취업지원처 채용담당자들이 격려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면접을 위해 새벽부터 광양까지 같이 동행해 주 감사하며, 반드시 최종 합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